

농축수산물 관세율 인하... '밥상 물가' 안정세 찾나

정부, 내달 초부터 돼지고기·고등어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소주 원료' 조주정도... 전년 대비 91.9% 오른 생강 수입 확대

"안오르는 게 없네요. 매일 반찬거리 마련할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주부 김모(여·39)씨는 "모든 물가가 다 올라 부담스럽다"며 "4살 아들 고기를 먹이려고 해도 돼지고기부터 닭, 한우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식탁에 자주 올리는 고등어도 크게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모두 비싸 될 사서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고물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각종 농산물은 물론, 육류와 수산물마저 가격에 크게 올라 서민들의 식탁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6월 초부터 돼지고기·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율과 시장접근불량 규칙을 개

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5만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삼겹살 1kg당 평균 소비자가격은 2만7720원으로, 이달 초인 지난 1일(2만4830원)보다 11.64% 올랐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달 삼겹살 가격이 전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 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고등어 불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로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10만5000t)은 할당 관세율을 0%로 낮추고,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수입 전량)도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한다.

'서민들의 술'로 불리는 소주 가격을 위해 조주정 소주 등 원료로 쓰이는 조주정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내 10개 주정 제조회사의 주정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주정판매는 지난달 소주의 원료인 주정(精糖)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 바 있다.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계속 올라 주류 업계에서는 소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기가 나왔다. 또 소주가 오르면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상술은 500~1000원씩 오를 수 있어 외식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박(4만5000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생강은 시장접근불량률 1천500t 늘린다. 시장접



근불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강은 시장접근불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작년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강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91.9%로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다만 0%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접근불량

증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여가, 생강 농가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은행 노조, 창립 48주년 기념 효도행사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창립 48주년을 기념해 '임직원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효도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효도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됐으며, 광주은행 임직원과 부모님을 초청해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본점 1층 광주화루전(廡)을 둘러본 후 임직원들이 부모님께 지금껏 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담은 자체제작 영상을 상영했으며, 순천만국제원탁박람회장을 방문해 가족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

성시키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임직원과 자녀들을 초청해 연극 관람 행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소통의 기업문화를 넓혀가고 있다.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과 부모님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효도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단공 광주본부, 아동시설서 나눔 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30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시 동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무등육아원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날 산단공 임직원들은 놀이용품으로 구성된 선물상자를 전달하고, 아이들과 함께 원예 체험을 진

행했다.

앞서 산단공 광주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10일에도 곡성군 겸면 소재 사과농장을 찾아 사과 수확하기 작업 등 농촌 일손돕기 활동도 진행한 바 있다.

산단공 광주본부는 '사랑의 나눔'을 슬로건으로, 매 분기마다 지역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사업당지역아동센터 등 5개 기관에 지역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0kg과 마스크 1만장 등을 후원하기도 했다.

황상현 본부장은 "5월 가정의 달이 아니라도 이웃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계속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산업단지공단도 지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 알아타세요

금융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10억 이하 직장인 대출 등 해당

31일부터 금융 소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알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해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알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울릴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 및 담보가 없는 신용 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알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세희망할씨대출, 징검다리

대출을 알아탈 수 있다.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내달 이후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은 없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바다의 날' 수산물 기획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바다의 날' (5월 31일)을 맞아 다음 달 1일까지 지하 1층 수산물매장에서 제철 수산물 기획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전복(1kg) 3만8000원, 바지락(100g) 2000원, 멍게(100g) 2000원 등에 판매하며 연어, 오징어, 흰다리새우 특가 행사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8개월로 연장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인을 최장 5개월 고용하

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가 농식품부 건의에 따라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에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책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85.52(+26.71)
↑ 코스닥	851.50(+8.27)
↑ 금리(국고채 3년)	3.560(+0.036)
↑ 환율(USD)	1324.90(+0.40)